

SUNBO NEWS

since 1986

www.sunboind.co.kr

E-mail sunbo@sunboind.co.kr

대표전화 051. 261. 3454

본사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산로 80

사훈 항상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자

주요 소식

2019 선보아카데미 최고 경영자 과정 PLUS 2025 중장기 전략방향 모색



지난 5월 24일과 25일 양일간 광안리 호메르스 호텔에서 '2019 선보아카데미 최고 경영자 과정'이 실시되었다. 조선 플랜트 산업의 동향을 파악하고 친환경, 수소경제 등 변화하는 미래의 제조 환경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PLUS 2025 중장기 전략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이번 워크숍에는 임원 및 부장 37명이 참석하였다.

임원은 한 기업의 대표이사로서 세운 전략적 방향성 속에서 성과를 높이기 위한 환경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핵심 직책이다. 임원이 구축해야 하는 환경과 시스템이란 무엇일까. 조직문화, 소통 프로세스 등의 시스템이 이에 해당한다. 성과 창출에 도움이 되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업무 프로토콜 및 소통(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를 정립하는 일이다. 조직문화 창출을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성과 관리, 갈등 관리, 인재육성 리더십 등의 역량이 필요할 것이며, 재무 이해, 전략 설정, 변화 관리, 마케팅 역량 등은 소통 프로세스 정립을 위해 필요한 역량이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회사는 매년 최고 경영자 과정을 마련하여 다양한 강의와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선보 임원들이 임원으로서의 핵심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는 특히 조선산업의 현황 및 변화의 과정에 있는 제조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마련되었다. 박중흠 전 삼성엔지니어링 사장의 '조선, 플랜

트산업의 현황과 전망', 박용석 신라대 겸임교수의 '변화와 혁신에 도전하는 신 성장 창조자의 조건', 박태주 부산대 명예교수의 '4차 산업혁명과 환경기술 혁신과제', 임동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박사의 '수소 이야기'는 현재 조선 플랜트산업의 현황과 미래 성장 동력을 알아보고 대응 대책을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런 한편 한정호 동국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의 '역사와 문화의 보고-동해구 감은사' 인문학 강의를 통해서도 문무왕릉과 감은사에 담긴 문무왕의 국가 수호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둘째 날 일정은 수변공원 산책로 트래킹으로 시작되었다. 이른 새벽 일정을 시작한 임원 일행은 조식 후 PLUS 2025 로드맵에 대한 팀별 발표 및 토론을 이어갔다. 장장 4시간 동안 진행된 이 자리를 통해 임원들은 PLUS 2025 로드맵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선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고 임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다시 한 번 무겁게 느끼며 술선수범하는 자세를 다짐하였다. 이처럼 '2019 선보아카데미 최고 경영자 과정'은 다채로운 강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임원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갈 'PLUS 2025' 중장기 전략방향을 모색한 뜻깊은 시간이었다. 임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전과 역량 강화가 선보 조직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미래를 희망차게 밝혀나가기 기대한다.

회사 소식

선보엔젤파트너스, IBK창공 부산 운영사 선정



선보엔젤파트너스가 'IBK창공 부산'의 운영사로 선정되어 부산 스타트업의 글로벌 확장을 돕는 의미 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창업 기업 지원 프로젝트인 'IBK창공(創工)'은 창업기업이 성공적인 사업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기업은행이 금융부터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창업기업과 금융을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창업기업에게 사무공간을 비롯해 투유자, 판로 개척,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2017년 12월 IBK창공 1호점이 마포에서 개소하였으며 'IBK창공 마포(1기)' 기업들에 투·유자와 컨설팅, 공유 오피스 등을 제공했다. 이어 IBK창공 2호점인 구로센터가 2018년 10월 개소하였다.

'IBK창공 부산'은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문을 여는 지역 지점으로, 지난 5월 31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기존의 지원에 더해 투자 유치를 위한 데모데이를 개최하거나 기업은행의 기업 고객 간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외 판로 개척, 1대1 멘토링 등도 지원한다. 선보엔젤파트너스는 'IBK창공 부산'과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운영사로서 지역 특화 육성프로그램을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탄탄한 중견기업, 투자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미래산업에 투자하여 창업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이다.

오종훈 선보엔젤파트너스 공동대표는 “부산과 울산에 전국 제조기업들의 30~40%가 몰려있기 때문에 산업을 기반으로 한 창업 기업들이 성장하기에 좋은 네트워크가 부산에 형성돼 있다”며 “글로벌 접근성도 부산이 서울보다 좋다는 점에서 창업 성공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IBK창공 부산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직접투자 및 TIPS 프로그램 연계
- 중견기업 및 글로벌산업, 투자 네트워크 연계
-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Series A 투자 유치 특화교육
- 후속 투자 유치
- 국내외 마케팅
- 멘토링 및 전문가 창업 교육
- 글로벌 스타트업 보육 및 성장 지원

방문

중강과덕 인큐베이터 송신 대표 방문 및 MOU 체결



지난 5월 30일 중강과덕 인큐베이터 송신 대표가 우리 회사를 방문하여 선보엔젤파트너스-중강과덕 인큐베이터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중강과덕 인큐베이터(中钢科德众创空间)는 중국의 대표 국유 철강기업인 중강그룹 산하의 전자본(全资子) 회사로, 줄어든 철강 수요에 대비하고 전 방위적 혁신을 추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선보엔젤파트너스는 지난해 11월 29일 한-덴진 비즈니스 포럼 행사에서 중강과 처음 인연을 맺었다. 두 회사는 제조업산업을 배경으로 하고 모회사의 사업 영역 확장 및 혁신이라는 동일한 설립 취지를 지닌 만큼 여러모로 통하는 바가 많았다. 또한 한국의 혁신 기술 창업팀들에 대한 중강 측의 적극적인 관심과 중국시장으로의 진입 루트 확보를 도모하던 선보엔젤파트너스의 필요가 통하며 업무협약까지 이끌어내게 되었다. 선보엔젤파트너스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국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 합작 펀드를 조성하여 한-중 양국의 우수한 창업팀에 투자한다. 또한 상술한 한-중 인큐베이터를 통해 국내 창업팀이 중국 현지에서의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방문

거제대학교 조선해양시스템공학부 학생 방문단



지난 6월 5일, 거제대학교 조선해양시스템공학부 학생들이 우리 회사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업무 현황 교류, 실제 근무지 견학, 공장 견학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방문단은 16명의 학생과 교수진으로 꾸러졌다.

학생들은 본사에 도착하여 설계 사무실을 둘러본 후 의전실에서 영업/설계 총괄 담당인 사공운곤 부사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후 다대 1공장으로 내려가 엔진룸에 들어가는 소형 유니트들의 제작 현장을 견학하였으며 구평공장에서는 대우에 납품 중인 탱크탑 유니트를 살펴보았다. 이어진 구평공장 투어는 설계 담당 인진태 상무가 인솔하였다. 인진태 상무의 설명에 따라 학생들은 자재부터 제작까지의 전 공정들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다. 투어의 마지막 순서는 구평1공장 방문이었다. 이석오 상무와 김태경 차장의 인솔 아래 현재 제작 중인 컴프레서 등 프로젝트 제품들의 공정 현황을 둘러보았다.

지역의 대학생들을 초청하여 조선산업의 현황 및 실제 제작공정을 둘러볼 기회를 제공하는 이런 기회가 훗날 학생들이 조선업계의 인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회사 소식

임원 진급 대상자 진급 축하



지난 5월 30일 2019년도 정기 인사발령을 맞아 임원으로 진급한 대상자들의 진급을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2019년 임원 진급 대상자는 품질경영 최경호 이사, 설계 6팀 임우택 이사, 기술연구소 정제현 이사이다. 세 사람은 앞서 5월 24일 1박 2일 일정으로 열린 '2019 선보아카데미 최고 경영자 과정'에 참가하여 선보 패밀리 임원으로서의 새 출발을 알리며 각오를 다졌다. 최금식 회장은 임원 진급자들에게 선보 마크가 새겨진 금배지를 선물하며 세 사람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였다. 지면을 통해 임원 진급자 세 사람의 각오를 소개한다.



품질경영 최경호 이사

초심을 잃지 않되, 위치에 맞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선보와 제 자신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계6팀 임우택 이사

선보에 입사한 지도 벌써 25년이 되었습니다. 회사의 발전과 함께 저 또한 발전해왔으며, 회사 창립 33주년이란 뜻깊은 해에 임원 진급까지 하게 되어 감회가 더욱 새롭습니다.

이는 항상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대비해온 회장님 이하 저희 선보가족분들이 있어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하며 이 기회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올 한 해는 제게 무엇보다 중요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밖으로 조선경기 회복의 조짐은 비춰지고 있으나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고, 또한 동종사와 경쟁이 치열해져 이익성이 현저히 떨어져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변화의 시기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에 선보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저는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어 선보가 더욱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선보가족과 보조를 맞춰 제 모든 역량을 쏟아 붓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연구소 정제현 이사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안전

산업현장 3대 다발재해 - 세 번째 협착재해



협착재해란?

두 물체 사이에 신체의 일부가 끼이는 재해(끼임, 절단, 물림, 접선물림, 회전물림)를 말한다.

주로 프레스 작업 중 금형과 금형 사이에 작업자가 끼이는 경우, 동력 전달부에 작업복 등이 말려들어가는 경우, 운반기계와 고정물 사이에 끼이는 경우, 회전하는 공구 또는 공작

물 등에 말려들어가는 경우 등이다. 산업재해 사망자의 10%는 끼임 사고가 원인이며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재해 중 30%를 차지할 정도로 자주 발생한다.

대부분의 기계 설비가 컨베이어벨트와 같이 반복작업으로 이루어진다. 협착재해는 기계 설비의 이러한 특성과 근로자의 부주의 및 사업장의 안전설비 미비가 한데 뭉쳐졌을 때 발생한다.

결국 신체 손상 및 절단 등의 중상 혹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재해이다.

협착재해의 예방대책을 알아보고 반드시 기억하여 이행하도록 하자.

협착재해 예방대책

1. 기계 운전 정지 후 작업 실시

기계 운전, 정비, 청소, 수리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작업을 하는 경우, 반드시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다. 만약, 운전 중 작업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험한 부위(회전날)에 필요한 방호조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한 보조기구를 이용한다.

2. 잠금장치 & 안전표지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후에 작업을 실시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 사실을 모르고 기계를 가동시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타인에 의한 기계 운전을 막기 위해 전원스위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는 작업자가 직접 관리한다. '점검 중 조작금지' 등의 안전표지 역시 부착한다.

3. 연동장치 설치

기계를 개방할 경우 즉시 회전부가 정지하고 설비 전원을 차단되도록 '연동장치'를 반드시 설치한다. 전기적 연동장치를 구성해야 하며, 작업자가 임의로 문을 개방하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4. 운전 시작 전 안전교육

끼임 위험이 있는 작업을 실시하기 전, 사업주는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 사용한다.

5. 센서, 덮개, 비상정지장치

기어, 벨트, 체인 등에 방호덮개를 설치하고, 비상 시 즉시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비상정지장치를 추가 설치한다. 만일의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센서를 설치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6. 작업지휘자 & 작업복

끼임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장에는 반드시 작업지휘자가 현장을 지휘하도록 한다. 작업지휘자는 회전체 취급 작업을 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감길 위험이 있는 옷, 머리카락 등을 정돈하도록 하고 면장갑 착용을 금지시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사내 복지

<아트부산 2019> 관람 지원



주 52시간 근무에 따라 일상에서 '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을 찾으려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다. 우리 회사 역시 '문화행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선보패밀리가 다양한 경험을 하며 일과 삶의 균형을 누릴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흔하게는 영화 관람부터 각종 전시, 연극, 힙합 페스티벌 등 그 영역도 다양하다. 이번 달에는 특히 평소 접하기 쉽지 않은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여 선보패밀리의 좋은 반응을 끌어내었다.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사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아트부산 2019' 관람을 지원하였다.

'아트부산'은 올해로 8회째를 맞는 행사로 부산을 문화예술의 도시로 만들자는 취지를 갖고 2012년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동시대 미술의 현재와 미래를 소개하는 다양한 전시를 선보이며, 지역 경계를 이끄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문화예술행사로 성장했다. 고액의 작품이 소개되고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미술애호가들이 주로 찾는 행사이나, 일반시민들 역시 전시 관람을 통해 특별한 경험을 누리고 있다. 쉽게 접할 수 없는 기회를 얻은 선보패밀리는 국내 최고 화랑들의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였다.

선보유니텍 구평1공장 품질 김형섭 대리, 선보공업 설계팀 이유진 사원 부부는 "부부 모두가 공대생으로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장르의 미술작품들을 자녀들과 같이 감상할 좋은 기회였습니다. 특히 자연의 향기와 소리를 방 안에 넣어두는 듯한 작품은 편안한 느낌을 주는 듯하면서도 움직임이 가미되어 재미있기도 하고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라고 전시 참가 소감을 전하였다. 이외에도 경영지원 이대현 계장, 다대3공장 석종현 과장 가족이 문화행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아트부산 2019'를 방문하였다.

좋은글

긍정적인 태도가 운을 부른다



각하는 것이다. 그런 자신감이 진짜로 운을 자신의 것으로 이끌 수 있다. 성공하는 사람의 공통된 사고방식은 바로 이런 긍정적 사고이다.

2. 운을 부르는 생활 태도

자신의 운을 좋게 하고 싶다면 운이 좋은 사람과 사귀도록 하라. 또 이기주의를 없애고, 긍정적 사고가 되도록 노력하고, 남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보다 거시적인 방향을 지향하여, 자주 반성을 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리고 열심히 배우고 일하라. 이것이 운을 부르는 생활 태도이다.

3. 오히려 걱정하지 않으면 잘된다.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걱정하지 않는 게 좋다. 걱정하면 걱정하는 대로 되기 마련이다. 걱정하고 마음 졸이는 대신 안심하고 있으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게 잘 된다.

4. 단점을 고치기보다 장점을 보완하라.

단점을 고치려 하기보다 장점을 더욱 보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 단점이나 결점도 점차 사라진다.

- 1. 운을 자신의 것으로 하는 사고방식**
스스로 운이 좋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운이 좋아진다. 반면에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 운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두 가지가 있다. 즉, 스스로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 중요한 것은 운이 나쁠 때도 좋다고 생

생일을 축하합니다

- ☑ **본사** 정현교(6.06) 이지영(6.08)
이창용(6.09) 김영관(6.10)
지수경(6.10) 이수진(6.12)
이현우(6.12) 황승연(6.12)
김지상(6.30) 이지혜(음6.04)
최금식(음6.14)
- ☑ **1공장** 김동섭(음6.01)
- ☑ **2공장** 제라드(6.01) 이창민(6.11)
양수원(6.13) 유 키(6.16)
김권덕(6.23) 김영자(6.25)
- ☑ **3공장** 정남교(6.05)
- ☑ **구평공장** 강옥찬(6.16) 김민지(6.20)
김동주(6.25) 천병철(6.28)
이창복(음6.23)
- ☑ **구평1공장** 박성준(6.11) 김봉수(6.12)
허 석(6.12) 김광호(6.15)
김은식(6.18) 조연주(6.20)
신명환(6.22) 공민식(6.23)
진영덕(6.25) 김동국(6.26)
김영복(6.28) 신상섭(6.28)
- ☑ **영암공장** 이규현(6.07) 박성철(6.10)
최소연(6.11) 이민현(6.23)
오세준(6.25)

임사 기념일

- ☑ **본사** 권순창(6.03) 안정빈(6.03)
장철민(6.09) 이현우(6.10)
최청학(6.10) 박귀남(6.18)
이우호(6.29)
- ☑ **1공장** 김동섭(6.01) 김대관(6.09)
안태주(6.19) 산토스(6.28)
- ☑ **2공장** 박을순(6.01) 안대준(6.01)
김종민(6.02)
- ☑ **구평1공장** 강경훈(6.01) 교 녕(6.01)
김경연(6.01) 김대중(6.01)
김영민(6.01) 문기철(6.01)
알 리(6.01) 이영춘(6.01)
위경군(6.01) 장여국(6.01)
최영운(6.01) 화화정(6.01)
후쭈지에(6.01) 박정은(6.09)
홍지령(6.10) 서상태(6.12)
김영철(6.22) 허원범(6.24)
김진우(6.25) 민정호(6.25)
- ☑ **영암공장** 최상식(6.02) 다라카(6.13)
수산타(6.27) 티완카(6.27)